신동기 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으로 세상보기

고전은 아이디어의 수원지다-형식지·암묵지에 대하여(2)

동양은 근대 이전까지 문화적으로 서양을 앞섰다. '지식'에 대한 객관적 인식 역시 서양보다 앞서 존재했다.

도가의 장자에서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책을 귀하게 여긴다. 책은 말을 글로 써놓은 것이고, 그 말에는 귀한 것이 있다. 말이 귀한 것은 바로 그 말에 뜻이 있기 때문이고 뜻에는 뒤따르는 바가 있다. 그런데 뜻에 뒤따르는 것은 말로 다 전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만을 귀중히 여겨 책을 전한다 -중략-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체와 색깔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름과 소리뿐이다. 안타깝다. 세상 사람들이 형체와 색깔, 이름과 소리만으로 저 깨달음의 세계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형체와 색깔, 이름과 소리만으로는 저 깨달음의 세계를 충분히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는 자는 말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말로 설명을 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장자외편, 2012, 홍신문화사, 188면)라고 말하고 있다.

말과 글에는 한계가 있어

바로 착륜지의(수레바퀴를 깎는 느낌)라는 고사성어의 연원이 되는 사례에서 나온 내용이다. 제나라 환공이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옆에서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던 목수가 환공에게 그 책의 내용은 결국 '옛 사람의 찌꺼기에 불과한 것'(앞책 188면)이라 하면서, 자신이 수레바퀴의 바퀴통을 깎을 때 헐겁지도 빡빡하지도 않게 적절한 크기로 깎아야 하는데 그것은 '손으로 터득하고 느낌으로 알 수 있을 뿐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사례다.

'명시지', 즉 '말'이나 '글'로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함께, 그 한계 너머는 '암묵지'가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장자와 비슷한 시기를 산 유가의 맹자 역시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 '재장과 윤여가 다른 사람에게 나무를 깎고 바퀴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지만, 그로 하여금 공교하게 할 수는 없다'(맹자2권, 2009, 학민문화사, 527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윤순이란 사람은 '규구는 방법이니 남에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은 배우는 상대방 본인에게 달려 있으니 가르치는 이가 아무리 대단한 장인이라 할지라도 이는 어찌할 수 없다. 기본적인 배움은 말로 전할 수 있으나, 통달하는 것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의 느낌으로 깨달아야 한다'(맹자2권, 2009, 학민문화사, 527면)라고 해설하고 있다.

M. 폴러니 보다는 2,300년, 데카르트보다는 2,000년 앞서 '명시지'와 '암묵지'의 구분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명백한 의미 정의가 동양에서는 이미 존재했었다.

높은 수준의 지식은 '암묵지'

한고조 유방의 손자 유안이 정리한 '회남자'에서는 '선왕이 쓴 책을 읽는 것은 그 말을 직접 듣는 것만 못하고, 그 말을 직접 듣는 것은 그 말의 원인을 깨닫는 것만 못하다. 또한 그 말의 원인을 깨달은 자가 그것을 말로 옮기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유안 편자, 회남자中, 2013, 명문당, 237면)라고 말했다. 명시지의 한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면서, 동시에 도는 말로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진정한 깨달음, 높은 수준의 지식은 명시지가 아닌 암묵지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장자, 맹자로부터 200여년이 지난 때 장자와 맹자 이상으로 암묵지의 절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긴 명시지와 암묵지의 공식 창안자인 M. 폴러니도 지식을 둘로 구분하면서 암묵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암묵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은 바로 암묵지이기 때문에 암묵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논리다.

/인문경영 작가&강사 · 경영학 박사

※출처: 신동기 저 '오래된 책들의 생각'(2017, 아틀라스북스)

기 고

진실을 말할 용기

송 재 빈
광주북부경찰서 구급담당

지난해 대통령탄핵심판으로 구속될 때 이를 보좌하던 당시의 비서실장은 법정에서 말하기를 "제가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구속까지 됐는데 비서실장으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 재판할 것도 없이 독배를 내리면 깨끗이 마시고 상황을 끝내고 싶다"고 했다. 이로 보아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위치의 자리에 있는 비서실장의 처신 여하에 정권의 운명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중국 송나라 시인 양만리가 월계에게 읊은 시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 세삼 떠오른다.

김처선과 김자원. 둘은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 정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내시였다. 둘은 연산군에게 충성하던 인물들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후대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김처선은 충신으로 평가 받고, 김자원은 간신으로 평가 받는다. 둘의 평가는 어디서부터 갈라진 것일까?

김처선은 임금인 연산군의 잘못에 대해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임금에게 충성을 하지만, 임금이 잘못된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할 말은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결국 그는 연산군에게 직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반면 김자원은 연산군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 연산군에게 충성했지만, 아첨도 잘 했다. 그렇게 연산군 옆에서 자신에게 오는 권세를 누리다가 중종반정 이후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성추행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파죽지세로 검찰 · 문화예술 · 대학 · 종교계를 거쳐 급기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지만 상대방에게서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불쾌하기 마련이다. 견디기 힘든 바른말보다 격려와 감사, 칭찬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바른말은 보약처럼 일시적으로 쓰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 바른말의 진가는 넓은 아량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을 좋아하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그 맛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권력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믿고 싶어 하지만, 역사는 달콤한 말을 하던 이들을 '간신'이라 부르고, 죽음을 무릅쓰고 쓴 소리를 하던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기억한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조선의 폭군 연산군에게 직언을 하다 내시 김처선은 현장에서 팔 · 다리가 잘려 죽었다. 전제군주 시절에 간언을 하려면 신하는 목숨을 걸어야 했다. 지금의 사태에 옛 충신을 떠올리는 것은 옳은 말하는 측근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전제왕조도 아니고 자유주의법치국가에서 도지사나 대통령에게 바른말하면 고작해야 면직이다.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측근들은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마스크 쓰고 법정에 서는 것을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자기관리의 중요성과 인생무상을 떠올려 본다.

독자투고

사이버학교폭력은 117신고로…

이 오 형
여수서 율촌파출소 경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도 많겠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걱정도 기대와 함께 비례하여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신체적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폭력인 사이버 상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큰 사회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이분석표"를 보면 "신체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16년에 비해 줄어들은데 반해,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같은 반 친구들이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비꼬는 글이나 욕설, 굴욕적인 사진이 올라오는 "떼카(떼로 메신져를 보낸다)"와 피해 학생이 채팅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해 채팅방을 나갈 수 없게 하는 "카톡 감옥", 다른 학생들의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빼앗아 쓰는 "와이파이 셔틀", "데이터 셔틀"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피해자를 향해 게재된 욕설과 비방을 많은 사람이 복제를 하며 순식간에 퍼지고 복제된 글이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2차, 3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따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최근 법원은 대화방이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쉬운 공개적인 공간으로 판단하고 이에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의 단순한 장난이 다른 누군가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피해학생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112신고, 117전화상담, 1388 청소년긴급전화, 온라인상담센터(www.wee.go.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로 사이버폭력을 인지하게 되면 신고해주기를 바란다.

아침을 여는 시

망모산아! 주구산아!

춘강 나일환

할머님 그리워 바라보는 망모산아.
해 뜨는 산머리에 그늘이 질 때면
어머니 그리워 홀로 절로 우는구나.

주구산자락에 예쁜 사랑 가슴에 묻고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는 너의 소식
가슴 저려 붉어진 내 모습이 가련하고 가련하다.

동백꽃 활짝 핀 양지마을 해 뜨는 집
손지 자식 고향 길. 호롱불 밝힌 죽산 모퉁이
너를 바라보며 가슴 치는 내 마음도 아프구나.

사랑은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 되어 흘러가고
미움은 저 멀리 안산위에 먹구름 되어 비 뿌리니
보고 싶다, 그립다
망모산아, 주구산아.

*망모산·주구산은 전남 무안군일로읍 죽산리에 자리한 작은 산

〈사색의 창〉 노령산맥의 맥을 이어 무등산을 통해 인의산을 거쳐 영암 월출산으로 가는 중간에 주구산과 망모산이 있다.어릴적 할머니 품에서 자라난 필자는 망모산을 항상 마음에 그린다. 효행의 마음 간절한 자식을 품어 안고 바라보는 망모산은 고향집을 바라보고 지난 세월을 이야기한다. '사랑하라, 미워 마라, 용서하라'는 오랜 사연 안은 주구산 자락에 비가 내리면 그리움이 가득한 아지랑이 피어나고 호롱불 밝혀 기다리던 손자 녀석은 할머님그리워 눈물 적신다.

/한국 사이버문학인협회 회장·시인 나일환

사 설

경력단절 여성 특단대책 필요하다

임신과 육아의 기로에선 젊은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동안 광주 · 전남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셋 중 1명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육아와 출산에 대한 지원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호남통계청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광주 · 전남지역 직장인 기혼여성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놀랍다. 이에 따르면 기혼여성 142만명 중 46만여명이 경력단절 여성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여성의 32%에 달하는 격으로 셋 중 한명은 직장을 그만둔 격이다.

30~40대 젊은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육아휴직보장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다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육아와 출산에 대한 지원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직장인 어린이집 등 보육 · 돌봄 인프라 강화를 골자로 한 지원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들이 단순히 권고 수준에 그쳐 사기업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경력단절 여성을 막을 수 없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개인의 일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이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뺑소니 교통사고 왜 근절 안되나

검거율이 매우 높음에도 뺑소니 교통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만 매년 400건 이상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 600여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니 놀랍다. 뺑소니 사고를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광주에선 최근 3년동안 모두 1,300여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년 평균 5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부상자를 응급조치 하지 않고 도주한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최근 3년동안 뺑소니 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 남는다. 같은 기간 광주경찰청 관내에서는 모두 1,298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 14명이 사망하고 2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2015년 440건, 2016년 422건, 2017년 436건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뺑소니 사고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모두 546건이 발생, 무려 18명이 숨지고 1천명이 넘게 부상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48건, 2013년 122건, 2015년 97건 등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니 안타깝다.

뺑소니 사고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행위나 다름 아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범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 · 발행 · 편집인 崔永基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李斗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기사 제보 (062)720-1050~56
F A X (062)720-1080~82
논 설 실 (062)720-1032
정 치 부 (062)720-1060~62
경 제 부 (062)720-1065~67
사 회 부 (062)720-1050~56
사회2부 (062)720-1043~44
문 체 부 (062)720-1045
전 산 팀 (062)720-1033
사 진 부 (062)720-1040
광 고 국 (062)720-1017

인쇄처 다원 인쇄
E-mail=jndn@chol.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유머@세상

◇염라대왕의 실수

어떤 30대 부인이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수술 받는 동안, 염라대왕을 만나는 사망 직전의 경험을 했다.

"염라대왕님, 제 일생은 이제 끝난 건가요?"

염라대왕이 기록을 살펴본 다음 대답했다.

"앞으로 50년 더 남았느니라"하고 돌려보냈다.

부인은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는 얼굴을 성형하고, 지방 흡입술로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퇴원했다. 그런데 병원을 나서는 순간 차에 치여 즉사했다. 저승으로 간 그녀는 염라대왕에게 따졌다.

"아직 50년이 더 남았다면서요?"

그러자 염라대왕이 대답했다.

"미안하구나. 그대를 알아보지 못했느니라."

◇당근

"당근은 눈에 가장 좋은 야채입니다"하고 시골의 안과의사가 환자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의심 많은 시골사람이 물었다.

"간단한 일이죠. 당신은 안경을 쓴 토끼를 본 일이 있습니까?"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3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3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여성 ·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 전남대병원	220-6900
		▲ 조선대병원	220-3114